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1

2022

차 례

1. 절세위인들 4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물우에 뜬 기름과 같다. 4

《20 세기의 대기적》 5

감탄한 외국의 원예설계전문가. 6

2. 오늘의 조선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 7

2022 년은 어떤 해인가. 7

2022 년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 8

2022 년은 5 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는 해. 9

2022 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보람찬 투쟁 10

국가사업의 제 1 순위로 놓고. 10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11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 1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대회진행 13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며 전진 14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활발해지고있는 과학연구활동 18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19
원격교육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 조선 20
사진편집물 22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 완공 22
경루동살림집 완공 24
학생들에게 새 교복 공급 26
사회과학부문토론회 소식 2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27
3. 특집 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2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36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40
4. 좌담 42
스스로 지는 의무 42
5.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소식 4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성대히 진행 47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토론문중에서 49
김일성주석의 세기적업적 49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가르치심과 뜨거운 사랑 52

세계의 유일무이한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인품. 58
현 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63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생활력. 66
경제적자립과 자주권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 69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73
김일성주석과 자주성을 위한 그이의 투쟁. 77
자주로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은 세계의 빛나는 모범이다. 80
혁명리론과 실천의 대가 **김일성**주석. 83
김일성동지: 조선의 력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조국건설. 86
6. 실화. 89
평양은 나의 애인이다. 89

1. 절세위인들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물우에 뜬 기름과 같다

1975년 11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학자일행을 만나주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담화에서 우리 당은 처음부터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진리를 굳게 믿었다고, 우리 당이 지난 30년동안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바로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라고, 만일 우리 당이 지난 기간 자기 인민에게 의거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거했더라면 그러한 성과를 이룩할수 없었을것이며 매우 착잡한 길을 걷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어떤 당이든지 인민대중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고, 상층부만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대중과 동떨어진 당은 물우에 뜬 기름과 같다고, 그러한 당은 자주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바람이 부는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20세기의 대기적》

1990년대 중엽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세계에 옥중투쟁을 하여 소문난 사람들이 있지만 30년, 40년 감방에서 굴함없이 싸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비전향장기수들을 데려오는 문제를 혁명의 길에서 우리 당을 받들어 싸운 동지들에 대한 믿음과 의리로 여기며 혁명의 령도자가 전사들에게 베풀어야 할 고귀한 사랑으로 간주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번에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모두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도록 하여주시였으며 행복속에 여생을 보내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은 이 사실을 두고 《20세기의 대기적》, 《지구를 들었다놓은 **김정일**시대의 특기할 사변》이라고 찬탄하였다.

감탄한 외국의 원예설계전문가

2013년의 어느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 정원들을 많이 설계하여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명성이 높은 외국의 한 원예설계전문가가 조선의 수도 평양에 자리잡고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공원화하였다는 소식은 한생을 원예설계가로 살아온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서자 그는 우뚝 서버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밝고 환하신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궁전의 웅장한 모습도 놀라왔지만 그앞에 펼쳐진 공원의 자태가 눈부시게 안겨왔던것이다.

그는 중심록지부분을 형성하지 않았으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이 중심이 있었기때문에 량쪽대칭을 이루고 이곳은 훌륭한 공원이 될수 있었다고, 참으로 위대한 발기라고 하면서 이 공원을 설계한 설계가를 당장 꼭 만나야겠다고 동행한 일군에게 말하였다.

동행한 일군으로부터 중심록지조성발기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친히 수정까지 해주시면서 오늘과 같이 완성시켜주신것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는 저도모르게 그이는 과시 위인이시구나라고 감탄하였다.

그는 원예설계에서는 세상에서 제노라 하던 자기도 정말 부끄럽다고, 금수산태양궁전에 와서 스승앞에 선 학생의 심정을 느낀다고, **김정은**원수각하께서는 원림형성과 건축조형은 물론 미학적인 면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계시는 참으로 걸출한 위인이시라고 감탄하였다.

2. 오늘의 조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주요사상

2022 년은 어떤 해인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2022 년이 어떤 해인가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2022 년은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하고 의의깊은 해이다.

2022 년은 5 개년계획의 운명과 련관되여있으면서도 현시기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발전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올해의 모든 사업은 5 개년계획의 첫해를 힘있게 추동한 동력을 그대로 5 개년계획완수에로 이어놓는 동력전달장치나 같다고 할수 있다.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이 올해의 투쟁여하에 달려있다. 조선인민은 앙양된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그 기세로 올해에 5 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아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올해 실행담보가 안받침된 중대과업들을 계획하고 진척시켜나갈 때 2022 년을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빛내일수 있다.

2022년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2022 년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2022 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5 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기는것이다.

당대회가 제시한 발전과 변혁의 5 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해한해의 사업은 대단히 관건적이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올해는 5 개년계획수행의 운명과 관련되는 책임적인 해이다.

올해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올해 수행하여야 할 기본과업을 깊이 새기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무한한 책임성과 헌신성, 배가의 투신력과 분발력을 발휘해나가고있다.

2022년은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는 해

2022년을 지난해의 앙양된 기세가 더 불타고 그 기세를 이전시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 기초를 닦아놓는 해로 되게 하려는것은 조선로동당의 구상이며 의지이다.

2022년은 5개년계획수행에서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2022년에 조선인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의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5개년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의 한해한해의 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의 발전적단계에 있어서나 국가의 전진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단히 관건적이고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구상과 결심을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받들어온 전체 인민의 완강한 노력에 의하여 지난해 최악의 조건에서도 조선인민은 당대회결정관철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미있고 소중한 성과들을 거두었다.

하지만 조선인민앞에는 의연히 애로와 장애가 버티여서있으며 더 방대하고 무거운 과업들이 나서고있다.

지금이 결정적이고 책임적인 시기이다. 2022년에 조선인민은 주동성과 적극성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내세운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점령해나가야 지난해의 소중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다음단계에로 확신성있게 들어설수 있다.

조선인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2022년에 반드시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여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해나갈것이다.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보람찬 투쟁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일대 결사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하나의 유기적인 통일체를 이루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은 바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당이 제시한 전투목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수행해나가는 과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중대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나라의 경제를 장성궤도에 올려세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새로운 건설혁명과 농촌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을 비롯하여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결사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릴 때만이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2022년에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야 할 최중대사는 비상방역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조선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에서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우선 전체 인민이 비상방역사업은 조국보위전, 인민사수전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비상방역전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정치공세, 집중공세를 계속 강도높이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혁명의 지휘성원인 모든 일군들이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안전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대중적인 방역분위기와 전 사회적인 자각적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로 각성분발하고있으며 고도의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견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색하며 노력하고있다.

또한 나라의 방역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방역수단과 물자들을 비축하며 각급 방역기관들을 더 잘 꾸리고 방역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이다.

농촌에서 3 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면에서나 기술지식과 문화생활면에서 근본적으로 개명시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만들수 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은 교육을 미래를 마음놓고 떠맡길수 있는 가장 우월한 교육, 리상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 모든 학생들을 참다운 혁명인재,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 사회주의후비대로 키우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후대들을 가장 훌륭한 제도와 조건에서 훌륭한 교육을 주어 훌륭한 인재로 키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선인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궐기대회진행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조선인민의 충성의 열의와 혁명적기세가 비상히 격양되고있는 속에 각지에서 궐기대회들이 진행되였다.

궐기대회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이 당에 대한 고결한 충성과 열렬한 애국의 한마음을 간직하고 새해 2022 년에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총궐기, 총매진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회들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전인민적대진군으로 국가의 부흥,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힘있게 다그쳐 위대한 새 승리를 안아올 결의드높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구호들을 우렁차게 웨치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갔다.

애 국 청 년

애 국 청 년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련대적혁신을 일으키며 전진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전력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당면한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가동률을 제고하고있으며 여러 화력발전소들에서도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각지 수력발전소에서는 물확보와 수력구조물상태를 료해장악하고 점검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와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화학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자체의 기술력강화에 계속 힘을 넣으면서 맹렬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비료생산과 경공업, 제약공업원료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으며 림업부문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을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가고있다.

각지 건재생산단위들에서는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생산에서 련대적혁신을 이룩해가고있다.

기계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 채취공업부문에서도 인민경제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과감한 분발력을 발휘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결정을 높이 받들어 경공업부문에서는 학생교복천과 가방천, 각종 학용품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활발해지고있는 과학연구활동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대학의 연구집단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 달려나가 과학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있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에서 과학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과 청진광산금속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의 연구집단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선철생산량을 늘이며 강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연구집단은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함께 갈탄에 의한 선철생산기술을 확립하는것을 주되는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전력, 건설, 교통운수부문에서도 연구집단들의 과학연구활동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함흥수리동력대학의 연구집단은 새형의 타빈날개설계 및 제작기술을 여러 수력발전소에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또한 평양건축대학의 연구집단은 연구성과도입과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여러 공사대상에서 건축물의 질을 더 잘 보장할수 있게 하고있으며 평양교통운수대학의 연구집단은 지칠줄 모르는 탐구전으로 교통운수부문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이밖에도 각지 대학들에서는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기초 및 첨단과학부문의 연구사업을 활기있게 추진하고있다.

대학들사이의 과학기술교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속에 우수한

기술과 경험, 수단을 공유하면서 생산능력확장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생산정상화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려는 연구집단들의 탐구열의는 더욱 고조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조선인민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약적인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재해성이상기후에 견디여내면서도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 다수확품종들을 육종도입하고 종자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수요에 따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책들을 세우고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어로작업의 효률을 제고하고 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수산물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고 배무이, 배수리기지, 어구 및 부속품생산기지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있으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다그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을 지켜선 경공업부문에서는 현시기 조성된 난국을 남먼저 타개해나가며 인민소비품생산을 활성화하고 품종을 확대하며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경공업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추진시켜나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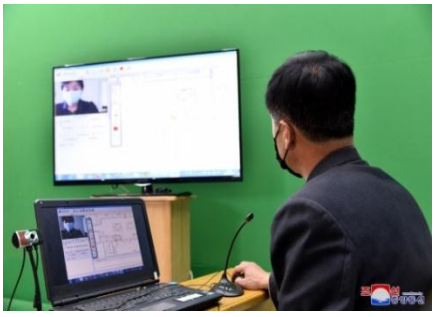
원격교육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는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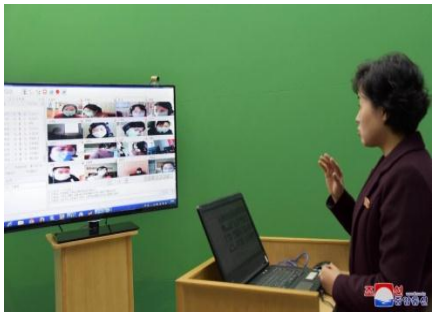
조선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원격교육체계에 망라시켜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첨단과학기술의 갱신주기가 계속 짧아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원격교육을 강화하여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군들, 근로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부단히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대학습당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원격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해동안 준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수십개의 학과목을 새롭게 개척하는것과 함께 현대적인 원격강의실들을 새로 늘여 교육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평양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을 비롯한 각지의 여러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의 입학생수를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 원격교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사진편집물

평양시 1만세대살림집 완공

우리식 사회주의문명부흥의 새 전기를
펼친 인민사랑의 기념비
송화거리

경루동살림집 완공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경루동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리념과 주체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평양의 새 경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경루동

학생들에게 새 교복 공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진행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중앙연구토론회가 2022년 2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중앙과 평양시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 무력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출판보도, 혁명사적부문, 당간부양성기관의 리론선전일군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있게 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도록 하신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주의를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건설리론, 사상론을 비롯한 혁명리론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여 주체의 혁명리론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길이 빛날 고귀한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당건설령도사는 비범한 정치실력으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온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김일성**주의화를

당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당으로,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백과전서적인 교본이며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고귀한 재보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선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천하제일명장이시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과 인민이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영원히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부동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이라고 하면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풍모로 사회주의조선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는 과학이며 법칙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3. 특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으로!
평양시 군중시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대공연《영원한 태양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제7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1912
조명축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 성대히 경축

미 술 전 시 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대공연《빛나라 정일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2·16 광명성절
2.16
80돐
삼지연시의 이채로운 눈얼음조각풍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80돐 성대히 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진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4·25
1932-2022

4. 좌담

스스로 지는 의무

사회가 생겨나고 국가가 발생한 이래 개별적인 사회적존재나 사회적집단이나 다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된다.

전자나 후자나 다 의무를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릴수 없고 권리가 없이 의무만 지닐수 없다. 하지만 인류사회발전과정을 놓고 볼 때 당과 국가가 인민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기 위하여 의무를 스스로 만들어진 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그 의무가 끝없는 헌신과 로고 지어 희생도 각오해야 하는 의무이기때문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정치방식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수천만의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많은 의무를 지고있다.

인민을 위해 조선로동당과 국가가 스스로 지는 무거운 짐, 의무와 책임에 대한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일군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리정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싶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3 차, 제 4 차전원회의에서는 국가적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공급하며 새로운 형태의 질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적인 중대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천개의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도 취하였습니다.

강웅철: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는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구상을 펼치였습니다. 특히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실천대책도 취하였습니다.

김혜성: 어머니당의 주요회의소식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존엄과 영광, 안녕과 행복을 위한것이여서 모두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이번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 누구나 그러하듯이 저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것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주명원: 저역시 같은 심정입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당의 배려가 얼마나 큰것인지 너무도 모르고 받아온 우리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중앙이 취한 중대조치들은 평범한 날도 아니고 너무도 어려운 조건에서 련이어 받아안는 사랑이고 배려이여서 더욱 격정에 목메입니다.

리소연: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돌려지는 당의 사랑과 배려는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줍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면서 국가적부담으로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것을 법화하고 온갖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고기와 알, 물고기와 과일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시들에는 구역마다, 군들에는 소재지마다에 탁아소, 유치원공급소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영양가높은 식료품들을 공급하도록 해주시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과일을 매일 공급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은혜를 다 전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강철: 나라에 세워진 어린이들을 위한 영양공급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로 돌리는것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본령이며 초보적인 의무라고 하시며 온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습니다.

김혜성: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우리 나라에서 여러가지 공산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나라라고 하여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나라라고 하여 실시할수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공산주의적시책은 오직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당과 국가만이 실시할수 있다고,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당과 국가의 정책은 달리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강웅철: 정말 수령이 비범하여서, 수령이 내놓은 사상이 위대하고 인민적이여서 베풀어지는 사랑도 그처럼 뜨거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나라 학생들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새 교복과 학용품을 공급해주도록 하시였습니다.

저는 온 나라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교복과 학용품을 받아안고 기쁨속에, 행복속에 맞이하던 태양절, 화창한 봄명절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리정화: 온 나라가 꽃바다였습니다. 거리에도 마을에도 꽃물결이 흐르고 어른들의 마음에도 아이들의 마음에도 기쁨의 꽃이 만발하였던 그 나날들을 우리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1974년 4 월 12 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학교에 나가시여 몸소 사진기를 드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새옷 입은 학생들의 모습을 찍어주시였습니다.

주명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락관하며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력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민을 위한 무거운 짐을 기꺼이 스스로 지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4 차전원회의에서 학생들에게 국가의 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을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책이라고 하시였습니다. 전원회의에서 과업이 제시된 때로부터 얼마 안되였는데 벌써 교정에 들어서는 학생들에게 새 교복과 학용품공급이 시작되였습니다.

리소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집집마다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흘러들고있습니다. 세상 으뜸가는 문명의 정상, 행복의 단상에 인민들을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웅대한 구상과 리상, 용암처럼 분출하는 그이의 열망이 인민들의 페부에 와닿고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데 대한 특혜조치가 선포되고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농촌건설정책을 놓고도 잘 알수 있습니다.

강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산간의 리상도시, 지방건설의 본보기인 삼지연시 농촌마을수준으로 꾸리도록 그 기준을 정해주시고 주요자재와 마감건재를 국가적으로 보장하며 농촌건설을 당적, 국가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도체계를 세울데 대한 과업 등 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지방건설에 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을 철저히 견지하여 농촌건설에서 독창성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습니다.

강웅철: 이것이 자신의 마음속에는 가까이 있는 인민, 멀리 있는 인민이 따로 없다고 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뜨거운 진정이

그대로 담긴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정화: 인민이 바라고 반기는것을 실현하기 위한 무거운 짐을 걸머지는 당과 국가의 품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행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궁토록 찬란할것입니다.

5.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소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 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성대히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기치인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가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연구소 인터네트홈페지에 개설된 특별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졌다.

또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 경축》이라는 표제아래 《**김일성**주석의 세기적업적》, 《혁명리론과 실천의 대가 **김일성**주석》,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자립적공업건설》, 《인류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주석》, 《자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인류의 생명선이다》 등 70여개 나라의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정계, 학계인사들이 제출한 130여건의 토론문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각 지역 주체사상연구소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이 토론회앞으로 보내여온 축전들이 게재되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아메리카지역의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성원들, 각국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가 개회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인터네트국제토론회가 열린것은 전 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1부위원장 심승건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는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요구이며 주체사상은 이 시대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다고 말하였다.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70여년력사를 통해 뚜렷이 확증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조선이 강국의 위용을 떨칠수 있은것은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투쟁해왔기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세계자주화의 거세찬 흐름은 주체사상이 과학이고 승리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투쟁의 고귀한 지침이라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복잡한 국제정세속에서도 주체사상연구보급이 중단없이 진행되고있는것은 그 절대불변의 과학성과 진리성에 대한 세계적인 공인으로 된다고, 이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여 21세기를 자주와 평화로 번영하는 인류의 세기로 빛내이는데서 선각자로서의 영예와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부리사장인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유하 끼엑씨,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들인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로헤껠레 깔론다 앙드레,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엘레아싸르 루비오 알다란,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인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류드밀 꼬스따디노브,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인 주체사상연구 로므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 바씰레오를레아누,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비딸 발라,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인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더블유.에이.두민두와르다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인 주체사상연구 베닌전국위원회 위원장 헤쑤 꼬호비, 벨지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앤 구쎈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 마얌발라 로렌스, 세네갈 우아깜지역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쑬레이만 바흐,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류에게 자주시대를 안겨주신 사상리론의 영재, 세계혁명의 수령으로 호칭하고 주체사상을 종합체계화하시여 인류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또한 조선을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범접못하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칭송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한편 토론회기간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조선》이라는 주제의 인터네트사진 및 도서전시회가 열리였다.

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을 수록하고 날로 고조되는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보여주는 록화편집물에 대한 시청이 있었다.

주체사상에 관한 인터네트국제토론회 토론문중에서

김일성주석의 세기적업적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라몬 히메네스 로뻬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가장 커다란 리론실천적업적은 세계적판도에서 자주성과 세계평화에 기초한 새 시대를 여는데 도움을 주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시키신것입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체인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습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82 년 3 월 31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0 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내신 론문인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찍부터 교조주의와 종파주의, 기회주의와

사대굴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시였습니다. 전세계 근로자들의 당들에서 나타나고있던 이러한 독소들을 반대하여 그이께서는 자력갱생에 의거하고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고 매 나라의 특성과 력사, 문화전통, 조국애를 고려하여 해당 나라의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을 빛나게 구현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한 사회주의나라로 강화하게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시고 사상사업에 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과두정치로부터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력량에게 있어서 특출한 유산으로 됩니다.

조선인민의 이 자주적의식의 발전은 반제투쟁의 가장 어려웠던 시기와 사회주의진영의 붕괴가 초래되였을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수호와 발전의 불패의 세계보루로 일떠서게 하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로 되였습니다.

새로운 이 시대를 세우는데서 **김일성**주석의 업적은 첫 자리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그이께서는 항상 매 나라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며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데 기초하고 나라들사이에 생길수 있는 불화를 전쟁에 매달리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 세계를 세우도록 투쟁하시고 이끄시였기때문입니다.

김일성주석의 유훈은 세계의 자주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투쟁하도록 하는것입니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동시에 밀고나가시였습니다. 이

혁명들은 현시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근본요인으로 됩니다.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자체의 특성에 맞게 이 3 대혁명을 동시에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그 어느 나라도 완전히 자주적인 나라로 될수 없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또한 3 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북조선에 사회주의와 상반되는 체제를 강요하려고 한 미제국주의의 시도를 짓부셔버린것입니다. 세계력사를 돌이켜볼 때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력사상 가장 강대하였던 제국주의강국의 침략에 맞서 자주성을 지켜내기 위한 인민의 가장 영웅적이고 힘있는 투쟁으로 됩니다.

김일성주석의 령도하에 영웅적조선인민이 거둔 이 승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기억과 마음속에 청소한 나라 인민이지만 혁명의식으로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아 세계의 지배자로, 무적필승이라고 자처하던자들에게 처음으로 되는 군사적타격을 안긴 하나의 업적으로 간직되여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이 승리는 **김일성**주석께서 밝히신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과시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자면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필요하며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정치적으로 교양하면 군사적견지에서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적들을 쳐부실수 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미일제국주의와의 두차례의 전쟁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행복한 인민의 나라의 세계적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 영원한 영광을!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가르치심과 뜨거운 사랑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

2022 년 4 월 15 일은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110 돐이 되는 날입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주석으로부터 수많은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자기 나라 인민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발붙이고 투쟁하신 김일성주석

혁명투쟁에서 수령은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혁명은 수령에 의하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사상이 창시되고 그것이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되여나갑니다.

맑스는 19 세기 중엽에 맑스주의를 창시하여 사회주의리론을 공상으로부터 과학에로 전환시켰으며 로동계급의 해방과 그 운명개척에 력사적기여를 하였습니다.

레닌은 20 세기초엽에 《제국주의론》을 저술하였으며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력사상 처음으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이름도 빼앗기고 갖은 수탈로 살아가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던 조선인민에게 해방을 가져다주시였으며 청소한 조선을 무너뜨리려고 덤벼든 제국주의세력의 압도적인 무력침공도 물리치고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우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하나로 뭉쳐 싸워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제국주의를 물리침으로써 자주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시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해명되고 인류는 목적의식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를 조선에 건설하였을뿐 아니라 자기 나라의 모범으로 자주평화운동을 선도하고 세계인민들을 고무해주시였습니다.

제가 1975 년 4 월 16 일 **김일성**주석을 처음으로 만나뵈웠을 때 주석께서는 세계인민의 자주위업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 리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앞으로 이룩해야 할 과업이 많다, 우리들은 앞으로 투쟁도 더 해야 하고 경험도 더 쌓아야 하며 리론도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당신들도 다 자주시대에 살고있으므로 이 시대적흐름을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그들이 자주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 서로 동지가 되여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시대에 사는 동지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서로 노력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였습니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구현해나가는 사업을 통하여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길로 이끌어나가는것이 전인류에게 기여하는것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였습니다.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후계자를 키우신 김일성주석

인민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장기성을 띠게 됩니다.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되여야만 완성되게 됩니다.

김일성주석은 후계자를 훌륭히 키우심으로써 인류에게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1987 년 1 월 19 일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웠을 때 저는 주석께서 너무도 허물없이 느껴져 실례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고 묻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동지는 무한한 겸허성을 지니고계신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계속하여 주석께서는 중국의 고사를 소개하시면서 후생가외라는 공자의 이야기를 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총비서와 새 세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러한 형태로 표현하시였던것입니다.

저는 **김일성**주석께 **김정일**총비서의 로작을 외국에서 출판할수 있게 해달라는 청을 올렸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그 소망을 풀어주시여 그후 **김정일**총비서의 로작이 출판되게 되였고 세계인민들은 주체사상을 더 깊이 연구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일본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각지에 **김정일**저작연구회를 결성한데 기초하여 1994 년 2 월 5 일 **김정일**저작연구회전국련락협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총비서를 키우신것처럼 **김정은**총비서를 믿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후계자로 키우시였습니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인생체험도 많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는 인민들과 함께 고난과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혁명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간직하고 혁명가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며 힘있는것이 믿음이라는 철리를 가슴속깊이 새겨안게 되였다고, 아마 **김정은**동지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은**동지는 령도자로서 지녀야 할

특출한 실력과 풍모를 갖추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전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김정은**총비서의 로작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배울수 있게 **김정은**저작집 제 1 권과 제 2 권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정숙녀사의 탄생 100 돐에 즈음한 2017 년 12 월 24 일 전국적조직인 **김정은**저작연구회를 오사까에서 결성하였습니다.

세계인민들을 사랑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사는 동지로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을 책임지시였을뿐만아니라 세계자주화와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에게 동지적립장에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1977 년 9 월 25 일 **김일성**주석께서는 야스이 가오루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을 만나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인 상설기관을 내오는것이 만장일치로 채택된것과 관련하여 지금 세상사람들이 주체사상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인민들은 자주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을 받고 야스이 가오루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표단은 귀국후 인차 주체사상국제연구소설립을 위한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1978 년 4 월 9 일 세계의 10 여개 나라에서 약 800 명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도꾜에 모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인민들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밀고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담보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투쟁의 첫시기부터 자기 나라 혁명을 자기 나라 인민에게 의거하여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진행할데 대한 자주적인

립장과 창조적방법을 견지하고 구현하여오시였습니다.

1990 년 9 월 17 일에 **김일성**주석께서 저를 만나주시였을 때 주석께서는 저에게 1920 년대중엽 국제당이 자신께 쏘련의 공산대학에 류학을 갈것을 권고한 일이 있는데 자신께서는 류학을 가게 해준것은 감사하지만 쏘련에 가서 배우지는 않겠다고 거절하였다고, 자신께서는 그때 서적을 통하여 학습하는것은 조선에서도 할수 있다고, 다른 나라 혁명의 경험을 배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형편이 좋은 때를 택하여 진행하면 된다고, 우리는 조선에서 혁명을 하기때문에 조선혁명의 방법은 혁명투쟁을 하면서 조선인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때부터 일관하게 조선혁명은 조선인민에게서 배운다는 립장을 견지해왔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저는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을 가슴에 새기고 일본의 투쟁은 철저히 일본인민에게 의거하며 일본인민의 사상감정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해나가리라 결심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이 식민지하에 있던 시기부터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계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커다란 난관이 있다해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이라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큰 뜻을 지니고 살아오신 분이시였습니다.

온 가족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김일성주석의 사랑과 믿음

김일성주석의 가르치심과 사랑은 저의 가족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주석께서는 1993 년 4 월 2 일 저의 가족을 초청하시고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우리 가족을 만나주신 다음해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지만 주석의 사랑과 믿음은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그후 주석께서 실현하시지 못한 혁명위업은 **김정일**총비서에 의하여 계승되였고 지금은 **김정은**총비서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습니다.

그이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서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해나가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총비서에 의하여 계승되고있으며 주석께서는 영원히 자주시대의 혁명의 태양으로 찬연히 빛나고계십니다.

저는 **김일성**주석을 생각할 때마다 주석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일본과 세계에 꽃피우기 위하여 인민들과 함께 계속 걸어나갈 결의를 새롭게 다지군 합니다.

세계의 유일무이한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인품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만주 라뜨나 사끼야

2022 년 4 월 15 일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 돐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조선인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억압받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그리고 전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영광이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참다운 생의 시대, 조선의 독립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 돐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인민의 자유와 독립, 사회적진보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생을 다 바치시고 인류를 위하여 빛나는 공적을 쌓으신 그이께 최대의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이 날을 맞으며 네팔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전 력사적시대, 현재와 래일을 대표하며 시대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수반들과 인사들, 학자들은 저도모르게 그이와 친숙해지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였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주석께서 지니고계시는 한없는 도량, 겸손성과 성실성에 기인됩니다.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인품은 세계에 유일무이한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보다 큰 리익을 위하여 쌓으신 **김일성**주석의 력사적공적을 떼여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나는 1979년 6월 19일 청진에서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오면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김일성**주석의 생애와 인품의 독특한 장점들에 대한 글을 써서 출판하였습니다.

당과 국가사업으로 그처럼 바쁘시였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1979년 6월 19일 우리들을 따뜻이 만나주시고 담화를 나누시였습니다. 주석께서는 나를 오랜 벗이라고 불러주시며 따뜻이 포옹해주시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직접 기탄없는 대화를 나눌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가지게 된것은 나에게 있어서 대단한 행운이였습니다. 나는 그때의 추억을 잊을수 없습니다. 이 날은 나의 생애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내가 제기한 모든 질문들에 답변을 주시였습니다. 내가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하시기에 앞서 **김일성**주석께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평양에서 만났어야 하겠는데 지금 지도사업을 하러 지방에 와있기때문에 멀리에 오라고 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량해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조선인민과 네팔인민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해주고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네팔기자협회 위원장이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주고있으며 나에게 여러번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비록 당신을 처음 만나지만 오랜 친우를 만난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는 가까운 친우가 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나라와 나에 대하여 따뜻한 말씀을 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을 회의도중에 만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당신들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내가 제기한 질문들에 답변을 주시였습니다. 내가 제기한 모든 질문들은 네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에 관한것이였습니다.

담화과정에 우리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국제적인 흠모의 마음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으며 그러한 느낌은 오늘날까지도 나의 마음속에 지울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끔 우리들자신은 **김일성**주석의 인품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되여 우리 마음속에 그토록 깊이 자리잡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놀라움을 느끼게 되며 그럴 때면 왜 그렇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자신들에게 묻군 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방문기간 우리 대표단 성원들을 대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가장 자애롭고 친근하신 인품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며 바로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소중한 추억을 안고 살게 하는 기본동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들모두가 **김일성**주석의 형제적인 환대를 받게 된것은 참으로 훌륭한 계기였습니다.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리고 내가 제기한 여러 질문들에 답변을 주시면서 **김일성**주석께서 보여주신 소탈함과 깊은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김일성**주석께서 지니신 가장 뛰여난 인품의 장점들이 조선을 진보와 번영의 길을 걷게 한 근본요인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1990 년 11 월 29 일 평양에서 나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을 만나뵙고 질문을 제기할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네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와 호상협력과 리해를 보다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나의 질문에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시였습니다.

《조선과 네팔사이의 관계는 력사적으로 좋게 발전하여왔습니다.

1974 년 5 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네팔왕국사이에 외교관계가 맺어진 다음부터 두 나라 인민들은 서로 지지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하여왔습니다. 오늘 조선과 네팔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날로 더욱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방문기간 모든 분야에서 조선인민의 생활수준을 체계적으로 올리기 위하여 국가가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는가에 대한 생동한 실례를 목격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공헌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은 오늘 부유하고 행복한것입니다.

우리는 방문기간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놀라운 진보에 대하여, 이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훨씬 앞서나아가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하여 온갖 현대적인 설비들이 보장되고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완전한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늙은이들과 녀성들의 복리를 위한 대책들도 취해져 사람들은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아가고있습니다. 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갖 착취에서 해방되였으며 이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정치적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기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단히 빨리 발전하고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적단합의 정신과 애국주의를 간직하고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나라의 힘찬 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과 공화국정부사이의 관계가 마치도 고기와 물과의 관계와 같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조선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공헌은 세계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지게 될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 돐을 맞이하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내 심장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이께서 더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끝으로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안녕과 번영을 축원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팔-조선친선 만세!

현 세계에서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떠구 싼또싸

2020년 11 월 24일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가 인도네시아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는 세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맺은 첫 친선협회들중의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는 2001 년에 창립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력사의 로정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인도네시아-조선친선협회가 1960 년대에 존재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김일성**화가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들이 특별히 재배하여 수카르노대통령이 1965 년 4 월 보고르식물원에서 **김일성**주석과의 첫 상봉에서 드린 인도네시아원종꽃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인도네시아방문은 **김일성**주석께 수카르노대통령이 올린 **김일성**화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와 조선과의 영원한 친선을 상징합니다. 그 친선은 궂은날, 마른날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1955 년 반둥에서 진행된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회의의 기본원칙들중의 하나인 평화공존의 원칙을 따르고있습니다.

평화공존의 기본사상은 매개 나라가 자기 존재의 범위안에서 생존권과 자주권행사의 권리를 가진다는것입니다.

한 나라의 생존이 다른 나라에 의하여 위협당할 때 위협을 받은 나라는 자기의 생존과 자주권을 옹호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습니다. 또한 평화공존의 원칙은 매개 나라가 다른 민족들과 나라들의 자주성과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줍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앞길을 밝혀줄뿐아니라 인류력사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철학적원리,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의 3가지 구성체계로 구분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라는 원리를 밝혀주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세계의 중심에 놓습니다.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세계의 개조를 결정하는것은 사람입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또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며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옹호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려면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를 구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인도네시아주체사상연구소조의 결성모임에서 우리는 신식민주의와 신제국주의,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표현들에 대처하여 세계의 민족들에 해당되는 민족성과 자주권에 관한 사상을 확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일본의 강점을 반대하는 조선민족의 투쟁의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시되였습니다.

초기에 사람들은 주체사상은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투쟁사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후 주체사상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주성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독창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여왔습니다.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혁명의 주인도 역시 자기자신이라는것을 밝혀줍니다.

주체사상은 다른 민족들에 의한 억압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경험에 기초하여 탄생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실현하고 옹호하기 위한 사상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중국, 로씨야, 일본과 같이 대국들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 지정학적현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실현하도록 추동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이 있어 우리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자기의 운명을 의존할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의존해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습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생활력

몽골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백두산협회
사회정치학 박사 느. 싸란토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밝혀주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을 가장 힘있고 재능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되여있다.

김일성-김정일 주의는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모든 사물현상에 대한 평가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모든 사회적운동의 근본목적으로 여기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며 혁명적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또한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을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로 여기고 인민의 창조력을 키우고 그것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근본방도로 밝혀주고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상에 인민대중보다 더 힘있고 현명한 존재는 없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발동할때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언제나 먼저 인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작성하시였다. 해방후 새 사회건설의 그처럼 바쁘신 나날을 보내는속에서도 나라의 수많은 곳들을 찾으시여 농촌지역들의 실정과 농민들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다음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도 다 그렇게 작성제시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한생을 인민의 존엄과 행복에 다 바치자는것이 자신의 목표이고 신념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실현에 정책의 사명과 근본원칙을 복종시키도록 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신분도 **김정일**총비서이시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김정일**총비서의 견해이다. 모든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여야 하였고 또 나라가 가장 혹심한 난관속에 있었던 지난 세기말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기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를 중시하신 **김정일**총비서에 의하여 인민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오늘날 인민대중제일주의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불패의 견인력을 발휘하고있다.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쉬

임없이 인민복무의 길을 걸으시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적로고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습은 빠른 속도로 변모되여가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자기의 영원한 생활력과 불패의 힘을 시위하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여온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리념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총결기간 인민존중, 인민사랑,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혁명적당풍을 전당에 더욱 철저히 확립하였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태와 특질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은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마다 인민의 절박한 요구와 지향을 존중하는 원칙과 함께 모든 생산과 건설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민의 편의를 첫자리에 놓으며 인민의 의견과 평가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또한 모든 당조직들과 국가기관들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정치에 의하여 조선혁명의 정치사상적지위는 확고히 공고화되였고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뚫고 나갈수 있는 불패의 힘이 구축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당과 국가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은 당과 국가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당과 국가를 충직하게 받드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사회주의조선의 참모습이 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필승불패할것이다.

경제적자립과 자주권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투쟁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
로동계시민협회 및 주체사상연구전국협회 위원장
교수 박사 로헤껠레 깔론다 앙드레

1.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그것을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심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자주, 인민들사이의 련대성을 지지옹호하는 국가로서 국제무대에 우뚝 올라섰습니다. 이로부터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모든 사회환경에 적용할수 있는 보편적원리로 되여 모든 인민들이 온갖 무지와 몽매, 멍에로부터 벗어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수십년째 노예제도옹호와 식민지화, 신식민주의의 모순을 겪고있는 아프리카는 비로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 새로운 사상을 알게 되였습니다. 40 여년전부터 일부 아프리카의 진보적인물들은 주체사상을 배우고 보급하며 아프리카나라들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힘껏 노력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는 리사들과 전국위원회들을 통하여 보다 체계화되여가고있으며 활동범위를 넓히고있습니다. 결국 보다 많은 아프리카인민들 특히 청년들이 점차적으로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기들의 역할에 대하여 각성하고있으며 여러 제국주의자들이 기를 쓰고 얽매여놓으려는 《대상》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또한 빠트리스 에머리 루뭄바(Patrice Emery LUMUMBA)와 아미깔 까브랄(Amical KABRAL), 또마 싼카라(Thomas SANKARA)와 같은 애국적인 아프리카지도자들이 흘린 피가 빛을 보고있습니다.

그것은 자주성과 자유 그리고 발전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 아프리카인들은 자기자신의 주인이 되여야 하며 자주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택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있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세대를 이어 싹트는 씨앗으로 되고있기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이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은 지식을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있지만 아프리카나라들에 아직 남아있는 신식민주의적구조체계의 수많은 장애에 둘러싸여있는것으로 하여 나래를 펴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일부 아프리카지도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아프리카인민들의 노력을 약화시키는 신식민주의적행위들을 규탄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지도자들의 영웅적인 행동과 처사는 젊은 아프리카세대들속에서 반향을 일으키고있습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은 진정한 정치적 및 경제적자주성과 나라의 자주권을 위해 싸우는 현시기 대다수 아프리카청년들의 투쟁열의를 보여줍니다.

2. 아프리카인들속에서 부쩍 커가는 자기가 자기자신의 주인이라는 의식의 형성발전은 아프리카공동체들에 적지 않게 남아있는 낡은 문화적 및 구조적체계로 하여 아직도 장애를 겪고있습니다.

문화분야에서 아프리카지도자들은 여전히 아프리카인들의 정신상태에 완전히 부합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있는 교육정책은 아프리카나라들의 력사나 구체적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있으며 지난날 사회의 근본가치로 간주되던 련대적인 모든 활동들이 리윤과 돈에 의해 침식되여 신성한것들이 비신성화되여가고있습니다.

구조적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아프리카사회에서 문명의 가치로서 표면화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를 외국의 강국들의 개념으로 각색화할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문화에 맞게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지배하는 국가구조나 헌법들은 다른 나라들과 신식민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기구들이 연약한것입니다.

3. 주체사상신봉자들과 핵심지도자들의 단합된 활동과 범아프리카주의를 위한 아프리카청년들의 보다 의미있는 활동에 의해 일련의 근본원칙들이 모든 단계에서 구현되지 않는 한 항구적인 범아프리카운동을 진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시키신 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훌륭한 정책들의 리정표로 되고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정책들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여러가지 필수적인 근본원칙들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

● 인민들의 요구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는것입니다.

지도자의 구상에 인민들이 옳바로 따라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치적 및 경제적투쟁도 결속될수 없습니다.

● 청년문제에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 건설적로동에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시켜 국가경제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아프리카나라들의 경제가 연약하고 외향적인것은 발전에 필요한 통화를 기본적으로 외부출자에 기대를 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아프리카나라들의 발전에 필요한 재정적자원은 근본적으로 아프리카나라들에서 생산되여야 합니다. 온 나라의 국가중소기업들의 촉진과 지방발전에 관한 발기를 지지하는 정부의 고무적조치는 전체 인민들에게 유리한 국가자원생산과 류통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학기술연구를 고무하고 궁벽한 지역의 농민들도 훌륭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가질수 있도록 발전활동을 끝없이 촉진시킬것입니다.

● 아프리카지도자들은 진정한 자위적국방력정책에 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원만히 보호하는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프리카는 자기를 지키는데 적합한 방도를 모색해야 할것입니다.

안전무력이 신식민주의강국들의 손안에 들어있다면 정치와 경제에서 자주성을 견지한다는것이 허망한것입니다.

● 애국주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가 아니라 말로 굼때는 적지 않은 아프리카지도자들의 경향.

흔히 민족주의적연설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정반대인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이 기만당하고있습니다. 사회적불평등이 늘어나고 탐오와 부패, 온갖 횡령에 의해 국가자금이 탕진되고있습니다.

4. 청년들에 대한 교양을 통해 주체사상연구를 힘차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본은 근로대중에 대한 적합한 사상기술적교육과 그들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주의를 돌리는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기증하는 틀에 박힌 정책은 매 공민에게 자기 권리에 대한 특권을 보장하는 정책에 자리를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라들의 경제적자주성과 자주권을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은 혁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자주철학, 발전철학에 대해 깊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자유와 발전을 추구하는 길에서 심각한 걸림돌로 되는 모든것들을 뿌리채 뽑으려면 아프리카나라들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반드시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구현하며 실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프리카청년들은 세계의 다른 인민들과 민족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해 준비되여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발전을 위한 도전에 나설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주체사상연구에짚트위원회 위원장
주체사상연구아프리카국제위원회 부위원장
야흐야 카이랄라흐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수백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주체사상이 조선인민에게 가져다준 영향력에 대하여 론할 때 우리는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조선인민이 이룩한 기적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의 스승이시였고 수령이시였으며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연구할만 하고 적용할만 한 가치를 가지는 지도사상입니다.

세계에서 사람에 의하여 위대한 개조가 이룩되였든 그리고 과학기술적, 정보적발전에 의하여 커다란 발전이 이룩되였든 지금도 주체사상은 과학계와 세계의 지식인들속에서 론의되고있으며 주체사상이 영원히 존재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조건들과 자료들에 비추어보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체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될것입니다.

나는 토론에서 주체사상이 가져온 주요개변들에 대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든 철학가들은 제도로부터 출발한 국가건설에 관심을 가지고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우선적위치에 놓지 않고 국가건설의 토대축성을 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을 국가건설에서 큰 토대로 여기시였습니다. 인간이 없는 국가의 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는가? 의식적인 인간이 없는 제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들이 없는 군사장비의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이 없는 귀금속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람이 없는 조국이란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봅니다.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은 적수공권으로 시작된 조선혁명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90 여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군사적강점(1905-1945)하에 있었습니다. 외세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민족의 불행을 통절히 느끼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주석께서는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실 결심과 념원을 안으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습니다.

일제타도는 곧 국제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승리, 일본의 히스테리적인 《야마도》정신에 대한 승리, 명치유신이후 거의 70 년간 새 일본이 축적한 인적, 물적 및 재정적자원을 감소시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주석께서 믿으신것은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였으며 조선인민의 힘이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인민대중의 힘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2 천만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피어린 전쟁을 벌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주석께서 카륜회의(1930 년 6 월 30 일-7 월 2 일)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천명하신 사상이였습니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조선혁명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조선혁명의 로선으로, 지도사상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주체의 구호를 높이 들고 항일무장투쟁을 벌림으로써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일부 나라들이 새 조선이 나라를 건설할수 있겠는지 고개를 기웃거리고있을 때 조선인민은 조국해방(1945 년 8 월 15 일)이후 자체의 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1950-1953)이후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은 100 년이 걸려도 다시 일어설수 없다고 떠벌였지만 조선인민은 복구건설을 단 몇년안에 끝내였습니다.

조선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조선의 현실과 리익에 맞게 자체의 결심과 의지에 따라 풀어나갔으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와 자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였습니다.

대국주의자들이 《통합경제》를 떠들어대며 조선으로 하여금 《쎄브》에 들것을 요구할 때에도 조선인민은 자체로 살아나가는 립장을 견지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며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로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의 자위적군사로선 등 혁명의 모든 년대기들에 제시된 로선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세기 90 년대중엽 조선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장 혹독한 정세속에서도 조선인민은 선군(군사선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쌓으면서 사회주의를 생명처럼 굳건히 수호하였습니다.

반공화국고립압살세력들의 책동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고 장기적인 조건에서 자체로 살아나가는 법을 배운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은 그들의 불변의 신념으로 되였습니다. 조선의 창조정신이며 애국기풍인 자력갱생의 정신에 의하여 나라의 국방력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건설의 새 신화가 창조되였습니다. 인민의 꿈과 리상은 날을 따라 현실로 될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밀고나가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빛나고있습니다.

조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하에 가장 밝은 시대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그이의 모든 관심은 조선인민에게 돌려지고있으며 그이의 관심의 초점은 인민생활향상에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교육, 청년, 보건,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돌리고계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도부와 인민에 대한 우리들의 련대성과 절대적인 신뢰를 표시합니다. 《COVID-19》로 인하여 초래된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룩한 성과들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것을 선언하면서 인류의 원쑤들에게 인권의 간판밑에 저들의 리익을 위하여 인간을 리용하지 말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인류의 원쑤들이여, 사람에게서 손을 떼고 저지른 죄를 속죄하라, 너희들은 사람들을 강점하고 그들의 힘을 강탈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다. 지금 너희들의 본색은 드러났다.

사람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존재,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남아있을것입니다.

김일성주석과 자주성을 위한 그이의 투쟁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린 씨노디움

김일성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령도자이십니다.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그이께서는 서거하실 때까지 나라를 이끄시였습니다.

1998 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무서운 세계적전염병과 숨막힐듯 한 제재로 인하여 악화되고있는 복잡한 국제적환경속에서 우리는 2022 년 4 월 15 일 그이의 탄생 110 돐을 경축하게 됩니다.

복잡하고도 파란많으며 횡포한 세계의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김정은**총비서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뒤를 이어 오직 자기 인민을 보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자주성을 담보하는데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계십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유훈에 충직하신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주체사상을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고계십니다.

걸출한 전략가이신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회주의위업을 향해 나아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만드시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계십니다.

김정은총비서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인민은 민족의 자주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모든 외부적간섭과 지배를 배제합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자주화의 위업에서 승리를 거두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자위력을 갖춘 조선식사회주의제도를 세우시고 나라의 자주성과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하시였으며 국가 및 당수반들과 정치, 사회, 과학, 언론계를 비롯한 여러 사회계의 인물들을 만나주시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 정치, 군사, 경제를 지도하여주시며 가리켜주신 길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총비서에 의하여 이어졌습니다.

김일성주석(1912-1994)께서는 1945 년에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1950-1953)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의 실정에 맞는 전법들을 창조하시여 승리를 이룩하시였습니다.

전후에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 자주적으로 나갈데 대한 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70 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당수반들, 저명한 인사들로부터 71 100 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습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45 년 8 월 20 일 군사정치간부들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워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엄숙히 밝혀주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당, 국가, 군대건설위업을 훌륭히 실현하시였습니다. 지난 70 여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영예를 지켜준 보다 완벽화되여가고있는 거대한 군사적잠재력은 국가보위에 관한 **김일성**주석의 자위적로선에 의한것입니다.

김일성주석께서 견지하신 군사에서 자위의 원칙은 선군정치방식을 내놓으신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령도자(1942-2011)께서 견지하신 원칙이기도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는 **김정은**총비서의 령활한 령도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김정은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의 생활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열중하고계십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2021 년 공화국창건 73 돐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73 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과 국가, 군대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여실히 보여주고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1945 년 10 월에 창건되고 **김정일**령도자께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오늘은 **김정은**총비서의 령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일성**주석은 자애로운 어버이, 영원한 수령이십니다.

자주로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은 세계의 빛나는 모범이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박사 더모트 하드손

김일성주석의 위대하고도 영원불멸할 유산은 주체사상과 주체조선이다. 주체조선은 주체사상이 낳은 기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인민대중중심의 혁명리론과 방법인것으로 하여 자주성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하고 자기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보편적이며 생활력있는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세계적범위에서 자주화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에게 독립을 가져다주었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인 주체조선을 탄생하게 하였다. 위대한 사상은 언제나 위대한 현실을 낳는법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조선은 완전한 자주성을 가진 주체의 강국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처럼 주체조선의 귄위는 높아지고있다. 실로 주체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인 국가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적들까지도 인정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토에는 단 한명의 외국군대도 주둔하고있지 않다. 주체조선의 맑고푸른 하늘가에서는 단 한대의

외국군용비행기도 볼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군사뽈럭에도 가담하지 않은 진정한 뽈럭불가담국가, 자주적인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연단의 성원국이 아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본주의가 몰아오는 위기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지고있다.

주체사상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를 낳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전 력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로선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는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과 로선의 기초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를 완성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천리마조선으로,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온 세계에 유명해졌다. 또한 무상치료제와 무료교육제도가 실시되고 세금이 폐지된것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의 락원으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의의 구속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건설할것을 지향하는 뽈럭불가담나라 인민들에게 유력한 본보기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혁명적이며 진보적인 수많은 인민들에게 고무로 되였다. 꾸바의 위대한 혁명가 에르네스또 체 게바라는 1960 년에 조선을 방문하고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직접 방문한 사회주의나라들가운데서 조선은 가장 특출한 나라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나라가 다름아닌 조선이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대표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험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조선을 방문하였다. 1969 년 말리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처음으로 조직되였다. 인민조선의 본보기와 주체사상의 힘있는 견인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넘어 뽈럭불가담나라들에로 광범히 보급되고 확대되였다. 1 000 여개의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조직되였다. 1978 년 4 월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일본 도꾜에 창립되였다.

자주성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성과 자력갱생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오늘날 제국주의자들은 주체조선과 주체사상 그 자체를 증오하고 두려워하고있다. 뽈럭불가담나라들이 자력갱생에 기초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면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막아내게 될것이다.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아래 인민조선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대세력들의 제재를 짓부시며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아가고있다. 자주로 빛을 뿌리는 주체조선은 세계의 빛나는 모범이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혁명리론과 실천의 대가 김일성주석

핀란드주체사상연구회 위원장
유하 끼엑씨

올해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을 맞이하였다.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정치가이시였으며 사회주의리론가이시였다.

김일성주석의 령도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수십년간이나 일제의 노예로 살아온 조선인민에게 자유와 인권을 가져다줄수 있게 되였다.

력사는 사회건설에서 논 주체사상의 독특한 위력을 목격하였다.

맑스주의는 로동계급의 세계관의 하나로서 사회주의리론을 처음으로 정립하였다. 레닌의 령도아래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수행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론 우리는 맑스나 레닌과 같은 혁명선배들로부터 혁명투쟁의 리론과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은 혁명리론과 방법을 영원히 교조적으로 집행할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대의 성격도 변하고 사회적환경도 변하며 혁명의 대상도 변합니다. 혁명의 대상이 변하는것만큼 혁명의 성격도 달라지고 혁명의 리론과 방법도 달라져야 할것입니다.》

혁명은 자기 나라에서 출발하여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벌려야 한다는 **김일성**주석의 명제가 혁명을 위한 유일한 방도로 된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자체의 힘에 의거하려면 경제적자립을 실현하여야 한다.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그 어느 민족도 다른 국가들의 압력에서 벗어날수 없다. 실례로 다른 나라들이 대외무역을 그만둘것을 위협하는것으로 민족에 압력을 가할수 있다. 경제적자립이 없다면 정치적자주성도 없게

된다.

경제적자립과 정치적자주성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출발점으로 된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사람의 근본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강조하려 한다.

사람의 근본속성을 밝히고 그것을 혁명운동에 구현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대단히 중요하며 혁명과 사회주의가 언제나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준다.

인민들의 단결은 급속한 사회건설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 단결이 결코 대중의 의견이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창조성은 인민들자신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이 인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민들의 창조성을 지지할 때라야 혁명정신이 강해지고 혁명과 건설사업이 크게 가속화될수 있다.

나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사상혁명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고싶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은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가운데서 사상혁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사상혁명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사상혁명을 무시한것으로 하여 사람들은 부르죠아선전에 옳게 대처할수 없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주체사상은 혁명실천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처음에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그후에는 **김정은**총비서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였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와 같이 사회주의리론이 과학적으로 동요없이 확립되지 못하였으며 21 세기의 실천에서 그

리론을 검증한 나라가 없다. **김일성**주석의 로작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 세계의 로동계급에게 리익을 가져다주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서만 전 세계에서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

세계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적불만은 날로 커가고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재부를 차지하는것을 용납할수 없다. 이것은 모든 민족들의 항시적인 기아와 노예화를 초래하게 된다.

김일성주석은 가장 저명한 리론가이시며 정치가이시였다. 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보다 공정한 세계건설을 시작할수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주체사상의 구현에 대하여 연구하고 주체사상을 보급하는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독창적인 주체사상만이 세계적인 난문제들을 해결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수 있다.

김일성동지: 조선의 력사와 문화에 뿌리를 둔 조국건설

베네수엘라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 교수 오마르 로뻬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고 식민지화한 때로부터 2 년후인 1912 년 4 월 15 일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였다. 이 식민지화과정은 조선의 모든 권력이 일본천황에게 강제적으로 넘어간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실현되였다. 조선의 자주권에 대한 이 침략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지 않기로 약속한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

조선민족의 단일성과 력사와 문화는 체계적인 말살단계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1923 년 조선말교육의 금지와 국가문건 (공공기관, 법기관, 학교)들에서의 그 사용금지대신에 일본말을 사용하라고 강요한것도 포함된다.

일제를 반대하는 **김일성**동지의 투쟁이 군사분야에서뿐아니라 조선인민의 머리속에서 인민과 조국에 대한 개념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와 맞서야 했다는데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신 다음 조선을 변모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나 봉건사회는 다같이 돈많은 놈들이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호강하는 사회이다, 독립된 후 조선에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세울수는 없다, 기계문명의 발전만 보고 자본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것도 당치않은 소리이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왕조정치에 그 누가 미련을 품겠는가,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목자르고 귀양보낸것밖에 더 있는가,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사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 …》

일제가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그 력사문화유산은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고 용감한 인민을 혁명에로 이끄는데 필요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1948 년 9 월 9 일)되기 전에 창립된 조선로동당(1945 년 10 월 10 일)은 조선인민의 사상적수양과 조선혁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이의 회고록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다.

《조선공산당은 창건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사상이 없고 대렬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변화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사변으로서 로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우리는 20 세기의 혁명적사변들을 통하여 10 월혁명후 여러 나라들에서 볼쉐비크당의 복제판인 《공산당들》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서와 레닌이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창건한 사실을 잘 알수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해서 투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나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을 계속해나가려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활동과 방향의 선도자로 간주하고있다.

폭넓고 다양한 **김일성**동지의 력사 및 정치유산은 오늘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및 사회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사상의 창시와 전면적인 체계화, 그 발전풍부화과정을 통하여 요약해볼수 있다.

6. 실화

평양은 나의 애인이다

인 훈

며칠간의 조선방문일정을 마친 미켈은 귀국에 앞서 방문기간 내내 품고있던 속생각을 통역원처녀에게 마음 먹고 터놓았다.

《조선에서 녀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는가?》

처녀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기는 처음이였다.

그는 웃으면서 말하였다.

《그런 법은 없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 나라 녀성들은 자기 나라의 남성들과 결혼하는것이 관습화되여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서로가 공통되는 그 무엇이 있어 합쳐지는 두 이성의 결합이다. 그런데 사상과 리념, 생활습성이나 풍습, 언어와 이여의 모든데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합되면 동화되는 과정이 오래일것이다. 서로 많은 리해를 하여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길면 인간의 별로 길지도 않은 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

《그런데 왜 물어보는가?》

《난 아직 결혼을 못하였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집이 없다. 집을 마련할 돈이 없다. 한 녀자를 행복하게 하여줄 돈이 없으면 인간이 누릴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는것을 우린 잘 알고있다.

그런데 조선에 오니 집걱정이 없다. 그리고 무료의무교육제도의 덕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킬 걱정이 없다.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 살면 좋겠다. 물론 나의 이 꿈은 허황한 꿈이지만 나는 가슴에 안고있다.

조선에서 태여났다면 지금쯤 나는 분명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어떤 녀성의 훌륭한 남편이 되였을것이다.

난 지금 세명의 친구들과 함께 돈을 내며 세방살이를 하고있다. 평양을 떠나가야 하는 이 시각 솔직히 말한다면 난 가고싶지 않다.》

그의 진정에 넘친 말을 듣는 처녀의 머리속에는 평양시에 들어서면서부터 감동을 금치 못해하던 그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조선의 거리들이 참 아름답고 매우 정돈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수 없는 정한 모습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꼭 돈을 지불하고 보수를 주어야 건설자들이 작업에 착수한다. 너무도 대조적이다.

인민을 위하여 려명거리를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렇듯 훌륭히 일떠세운것은 경탄할만한 사실이다. 이런 기적은 사상의 힘에 의하여 생겨난것이다.

서로 상반되는 두 세계!

사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만경대고향집, 조선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청년운동사적관, 평양중등학원, 중앙동물원…

평양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그는 방문의 하루하루가 천년맞잡이로 자기에게는 참으로 의의가 깊다고 하였다.

《주체사상탑의 높이는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우리들의 정신력의 높이이다.》

《조선에는 <미래를 사랑하라!>는 훌륭한 구호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꿈은 조선의 미래이다. 그 미래를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조선로동당이 있기에 조선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평양중등학원은 학원이라기보다는 호텔같고 궁전같다. 부모없는 아이들이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밝고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보니 나도 조선의 어린이로 다시 태여나고싶다.

나는 조선에 완전히 매혹되였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속에 조선의 미래가 보인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정말 훌륭하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특정한 인물들과 부자들만 보는 공연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선에 와서 아이들과 로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관람하는것을 보니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다시금 절감하였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특권층이나 부유한 자들만이 문명을 누릴수 있다. 조선인민은 정말 행복한 인민이다.》

…

참관지마다에서 그가 한 말을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면서 처녀는 평양을 떠나고싶지 않아하는 미켈의 심정이 십분 리해되였다.

에스빠냐의 어느 한 부동산회사 직원인 미켈은 정녕 떠나고싶지않은듯 평양의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인간은 미래를 안고 산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적요구이기도 하다. 미켈은 평양에서 인류의 미래, 아름다운 미래를 보았던것이다.

《그래도 에스빠냐는 당신이 태여나 자란 조국이 아닌가.》

미켈은 그렇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나는 조선에 와서 형제의 정, 혈육의 정을 느끼게 되였다. 모두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다.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바탕을 둔 우리들은 그의 가지들이고 잎새들이다. 주체사상이 있는 한 우리의 형제의 정은 더 두터워질것이다.》

그는 통역원처녀의 두손을 잡고 절절히 말을 이었다.

《나는 떠나가도 평양은 나의 애인이다. 나의 마음은 항상 평양에 있을것이다.》